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주 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8

2018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2018. 11. 5. 월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진행순서

구분	시간	구분	발표
1부	14:30~15:00 (30분)	등 록	참석자 등록
	15:00~15:10 (10분)	소 개 인사말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5:10~15:25 (15분)	사 회 주제 설명	좌 장 정경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15:25~15:45 (20분)	기조발제 I	주 제 전환의 삶의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제1 고영직 (문학평론가)
	15:45~16:05 (20분)	기조발제 II	주 제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으로 발제2 정민룡(북구문화의집 관장)
휴식	16:05~16:20 (15분)	휴 식	
2부	16:20~16:35 (15분)	토 론	주 제 생애전환, 나이와 시간에 대한 사유 토론1 신동호 ((사)인문사회연구소장, 코뮤니타스 대표)
	16:35~16:50 (15분)		주 제 생애전환 사업 전남사례 토론2 임진호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16:50~17:05 (15분)		주 제 예술은 달걀후라이다 토론3 김옥진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마음놀이터 대표)
	17:05~17:35 (30분)	종합 토론	
	17:35~17:50 (15분)	마 무 리	토론 요약 정리

목 차

발제 1	전환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06
고영직 문학평론가,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추진단 단장		
발제 2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으로	24
정민룡 북구문화의집 관장		
토론 1	생애전환, 나이와 시간에 대한 사유	34
신동호 (사)인문사회연구소장, 코뮤니타스 대표		
토론 2	생애전환 사업 전남사례	42
임진호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토론 3	예술은 달걀후라이다	52
김옥진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마음놀이터 대표		



01 전환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고영직 문학평론가,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추진단 단장

전환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고영직 문학평론가,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추진단 단장

1. ‘두번째 삶’을 위한 앙코르 커리어

사람의 생애에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서사(narrative)가 중요하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는 어떤 인간이고,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이며,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싶어하는지 모른다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신중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겪는 고령화 쇼크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개인의 차원에서건 집단의 차원에서건 이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인생후반전 ‘두 번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 또한 필요하다. ‘꼰대’가 아니라 ‘꽃대’로 전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년 세대의 전환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지금까지의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식과는 좀 판이해야 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하완) 같은 태도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안해 본 일들에 도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2014년 어느 신문에 「꼰대 말고 꽃대」(<한겨레>, 2014-11-01)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의도 또한 그런 측면을 의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말해 신중년 세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공선을 발현하는 선행시민(Senior Citize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멋진 신중년의 양식(late style)을 보여주는 ‘세대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멋진 신중년의 양식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출신 지식인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창한 바 있는 ‘말년의 양식’(late style)을 변주한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최후의 순간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멋진 말년의 양식을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검토하며 이러한 개념을 제시했다.

신중년 하면 ‘꼰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회는 행복한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꼰대 문화는 나를 비롯해 우리나라 중년 세대의 견고한 문화적 문법을 형성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법하다. 생물학적으로 신중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연하며 우리 시대의 핵심적 모순은 외면한 채 조화사회 운운하는 말을 하는 신중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좋은 과업을 남길 수 있는 강한 열망이 있는 중년의 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위한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은 미국에서 앙코르운동을 선도한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 설립자 겸 CEO인 마크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서 “목적, 열정, 보수가 한데 합쳐진 추구의 활동”을 의미한다. 신중년 세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이 결합된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식으로 말하자면 생성성(generativ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꼰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신중년의 문화적 문법을 ‘꽃대’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꽃대’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신중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올해 초 사회학자 김찬호, 여성학자 조주은과 함께 베이비부머 3명을 심층 인터뷰한 책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서해문집)에서 다룬 바 있다. 신중년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며, 기존의 상투화된 기능교육 위주의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중년 세대를 자기 주도성을 지닌 주체로 온전히 바라보려는 전환을 위한 인생재설계 과정의 설계와 운영이 요청된다. 어쩌면 문화예술교육이 의미 있는 것은 삶의 전환 혹은 전환의 삶을 위한 점점 내지는 작은 실험을 제공하는 일에 있을 터이다. ‘문래동 흥반장’ 최영식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등장하는 ‘희망제작소 행복설계아카데미’를 ‘문화예술교육’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 ㉠ 선생님의 경우에는 희망제작소에서 강좌를 수강하신 게 인생 2막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 ㉡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퇴직교육을 받고, (2010년) 퇴직한 후 동네에서 놀다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희망제작소에서 연 행복설계아카데미였습니다. 사회 공헌, 재능 기부 강좌를 수강했죠. 인생 1막을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인생 2막은 어떻게든 사회에 공헌하고 재능도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아름다운재단이나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에 후원금만 내고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꿈꿨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돈 벌어 오는 건 좋은데 돈 벌어 오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그냥 제쳐라’고 하더라구요. 참 고마웠어요. 아마 지금쯤은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웃음) 저는 ‘땡큐’였죠. 당시는 막 퇴직한 상태니까 아마 위로 차원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희망제작소에서 명함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과 짝꿍을 맺으면, 그 돈이 멸종동물을 보호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백수가 돼서 명함도 없고 하니 일단 만들었죠. 다른 한편으로 제 인생 2막은 안단테(Andante)로, 다시 말해 ‘느리고 단순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이라도 재미없으면 절대 안한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느·단·삶’이라고 줄여서 명함에 넣었는데, 우리 아내는 ‘느지막이 고단한 삶’이라고 읽더라구요.¹ (밀줄 인용자주)

2. 전환의 삶을 위한 베이스캠프

이 점에서 ‘전환’이라는 키워드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이 신간 『선망국의 시간』(2018)에서 강조하는 ‘전환’의 의미는 경청할 만하다. 조한혜정은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라고 묻고 있다. 지금·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 질문에 진지하게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물리적인 시간과 생리적인 연명(zoe)을 넘어, 무엇이 의미를 생성하는 진짜 삶(bios)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를 위한 시간조차 소비사회의 주체로서 쇼핑하는 데 소진하고 있으며, 유명 셀럽들의 자기계발 서적 따위를 탐독하며 각종 스펙 쌓기에 탕진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아상이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CEO of Me Inc.)로서 개인 브랜딩하도록 독촉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¹ 고영직·김찬호·조주은,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서해문집, 2018, pp.59-60.

그러나 조한혜정은 『선망국의 시간』에서 ‘다른 시간’을 설계하고 직접 살아갈 것을 제안한다. 조한혜정이 말하는 다른 시간이란 ‘전환의 시간, 미래의 시간, 신뢰의 시간, 시민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간을 재구성해야 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문화와 행복의 본질이 ‘시간의 활용’ 자체에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 ‘시간의 향기’ 또한 우리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시간의 재구성을 통해 관계의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한혜정은 “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믿는 문명이 수명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침통하게 응시하는 인식틀이라고 생각된다. 쉽게 말해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인 한낱 호모 사케르(Homo-Sacer, 헐벗은 삶)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난민이고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주장인 셈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취향을 좇는 소비자인 동시에, 이익을 좇는 투자자가 되었고, 이제는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조물주가 되어버렸다는 조한혜정의 진단이 마냥 억측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한혜정이 ‘먼저 망한 나라’를 뜻하는 의미에서 ‘선망국(先亡國)’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오해는 마시라. 조한혜정은 「선망국에서 선망국으로」라는 서문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 주민들이 부러워할 ‘선망국(羨望國)’으로 변신하자고 제안한다.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작고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제안한 바 있는 ‘해방국 파국’이라는 개념에서 비롯하였다.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자는 주장인 셈이랄까.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서 조한혜정은 공유재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가 일종의 ‘사회적 자궁’ 역할을 하는 환대의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신중년의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도’가 있고, ‘인기척’이 살아 있는 삶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외면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비밀 언덕’이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은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유구한 에토스(ethos)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전환은 돈을 향한 자산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쉽’의 자유를 통해 새로운 재활력화 운동이 필요하

다. ‘각자’와 ‘각자’로 서로를 존중하며, 돌봄의 감각을 회복하며, 소통과 관계의 재생을 통해 전환의 삶과 전환의 문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현장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실험들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른바 ‘재산권 신수설’과 ‘학력 신수설’을 신봉하는 사회에서는 그 어떠한 새로운 활력도 희망도 감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추진단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몇가지 사업의 기초와 원칙을 제안하였다. 아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내가 제안한 기본 문제의식의 일단이다.

- ❶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더하고(+) 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곱하고(×) 나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전환기에 맞는 시간의 과잉, 관계의 소멸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고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베이스캠프이다.
- ❷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인생후반전 두 번째 삶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두 번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 예술인, 예술단체를 비롯해 50+ 당사자 및 당사자모임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 ❸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일자리 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고 대하려는 마음의 습관 형성을 하는 베이스캠프이다. 평생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나만의 전문 콘텐츠는 넘버원(No1.)이 아니라 온리원(only One)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생각한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일-관계-놀이의 적절한 균형(a fine balance)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❹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에서 활동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며, 강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❺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직접 행함(doing)과 고통을 당함(suffering)을 주요 구성원리로 삼는다. ‘비로소’ ‘하마터면’ ‘태어나 처음으로’ 같은 부사어는 그러한 표현이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할 줄 아는 암묵지의 경지를 지향한다.

- ❻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운영에서 나를 중심에 두되 동료들과의 연결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기획자, 강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안테의 법칙²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 ❼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처음부터 50+ 세대의 사회공헌(사회기여)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사회공헌(사회기여)은 사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성과로서 사회공헌(사회기여)을 지향하지 않는다.
- ❽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수강생 선발과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성비, 연령, 경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연령이 너무 많거나 적은 분들은 선발을 지양하고, 남녀 성비 비율 및 인생 경력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선발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감각을 충분히 깨도록 한다.
- ❾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서 참여자들의 자기 주도성과 자기 결정권을 고려한다. 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❿ 프로그램은 50+ 세대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 및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한다. 프로그램 예시로 △1박2일 워크숍, △포럼, △커뮤니티, △문화/예술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포럼은 흐름상 분위기와 맥을 끊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과정은 커뮤니티가 구성되기 전까지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진지하게 내 얘기를 하는 시간을 살리며 스토리텔링 발표회를 열고, 졸업식 때 커뮤니티 발표회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참고로 2017년 서울시 서부캠퍼스 3기 50+ 인생학교 세부 구성안을 덧붙인다.

² 안테의 법칙은 노르웨이 소설가 악셀 산데무세(Aksel Sandemose)의 소설 『도망자는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밟는다』(1933)에 등장하는 마을인 ‘안테(Jante)’ 사람들이 지키는 11개의 법칙이다. 사람은 모두 같으며,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점을 역설하는 평등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로는 ‘라곰(lagom)’과 ‘안테라겐(jantelagen)’이라고 한다. 라곰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적당함을 의미하며, 안테라겐은 평등주의이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②당신이 남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③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④당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⑤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⑥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⑦당신이 모든 것에 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⑧남들을 비웃지 말라, ⑨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⑩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⑪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표1 | 2017년 서울시 서부캠퍼스 3기 50+ 인생학교 세부 구성안

회차	날짜	구분	프로그램 내용
1	3.23 목	입학식	O.T (인생학교 소개 총동문회 소개)
			인생학교란 로드맵 제시; 비전과 목표, 세부 커리큘럼 제시
		워크숍1	[마음열기 & 마음먹기] ; 자기소개를 중심으로
		환영회	총동문회 환영회
2	3.30 목	주제포럼1	주 제 생애전환기 ‘일’ ‘돈’에 관한 발상 전환 발표1 50경제학에서 본 노후 준비 발표2 50+인식전환을 위한 앙코르커리어
3	4.6 목	워크숍2	어쩌다 만난 예술 Story method / 영화 / 연극
4	4.13 목		
5	4.20 목	워크숍3	1박2일 / ‘Dragon 虎’ 탐승하기 - 구민정 부학장
6	4.21 금		
7	4.27 목	워크숍4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커뮤니티 만들기(100분)
		현장수업1	[혁신파크 탐방] 100분 탐방 전 혁신파크 입주기업 2곳 선정 간략 소개 - 소개 각 20분, 40분 / 탐방 60분
8	5.11 목	주제포럼2	주 제 생애전환기 ‘주거’ 및 ‘관계’에 관한 발상 전환 발표1 100세 시대, 주거공동체 실험/ 김수동 대표 발표2 마을에서 실현한 1인 자립경제: 마을과 나/ 최영식
		현장수업2	인생학교 3기 자치회 구성 및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제 부여 - 어떤 종류의 과제인지 ‘워딩’이 필요함
9	5.18	발표회1	과제와 관련된 활동 발표 스스로 만드는 커뮤니티 활동 1
10	5.25 목	주제포럼3	주제/내용 결정 - ‘놀이/여가’에 대한 이야기 특강 + 사례 발표. 강원재(○○은대학) / 김윤진(무용가)
		발표회2	스스로 만드는 커뮤니티 활동 2
11	6.1 목	발표회3	스스로 만드는 커뮤니티 활동 3
12	6.8 목	발표회4	인생후반부 스토리텔링 발표회
		졸업식	졸업행사 (커뮤니티 발표회)
-	자체일정	졸업여행	인생학교 3기 졸업여행

3. 교육에서 활동으로: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광역센터는 모두 5개 센터이며, 아르떼 자체사업으로 <문학으로 한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두 차례의 워크숍(5월/10월)과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올해 시범사업은 ‘가지 않은 길’을 개척 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코 속단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두 차례 워크숍과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올해 시범사업은 여전히 상투성을 면치 못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점은 노년예술수업을 비롯해 문화 예술교육 전반의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프레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복지기관(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에 참여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노년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6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에서 주관하는 복지기관(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업 12년째를 맞아 참여시설, 참여인원, 개설반 수 모두 증가했으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숙의 측면에서는 고민할 지점들이 적지 않은 듯이 보였다.

현재 이 정책사업은 2011년부터 아르떼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 《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발전적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2016)에 따르면, ‘문화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사업의 세 가지 목표달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문화소외계층인 노인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즉 문화복지 실현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교육에서 활동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되고,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2 |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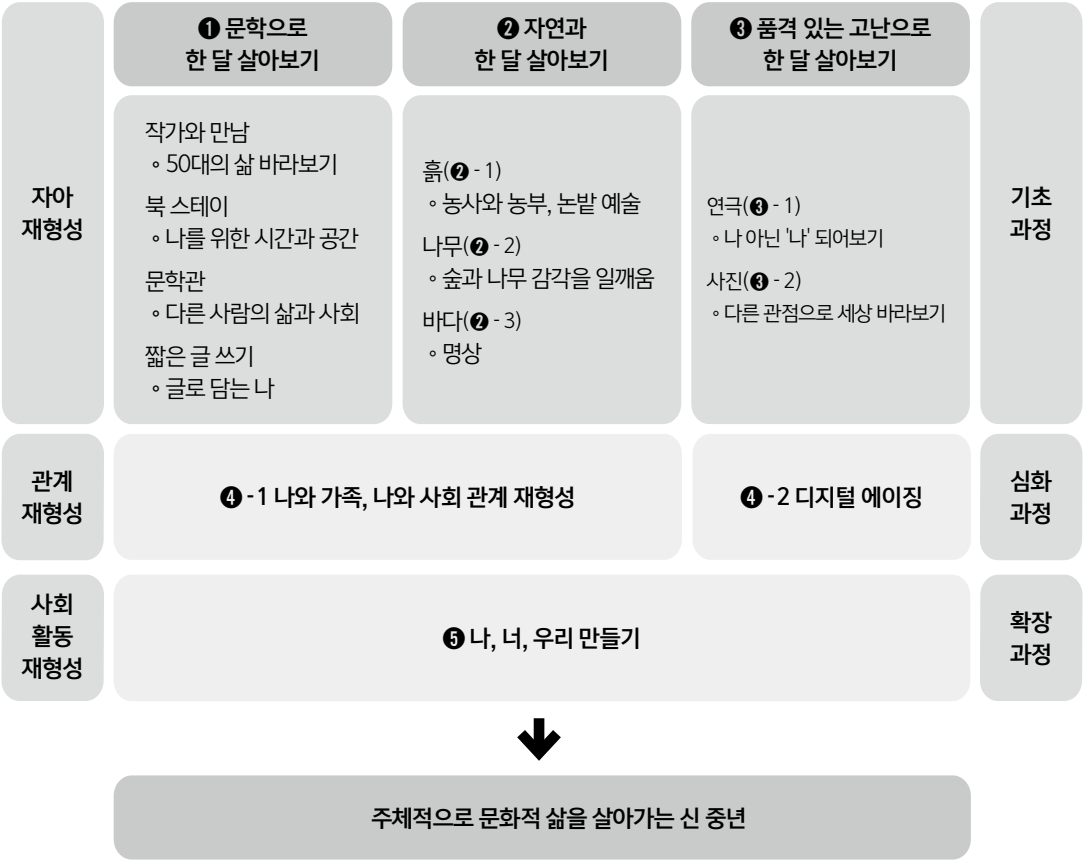
	날짜	구분	프로그램 내용
1	세종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청춘문화VJ ‘세종진담’	한국영상대와 협약. 미디어교육. 자체 50+ 대상 FGI 진행.
2	대전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꽃보다작가, 일상탈출	프로젝트팀(5명) 협업 플랫폼. 미디어교육.
3	경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고마운 내 인생, 쓸만한교(校)	창원 국가산업단지 노동자 대상. 디제잉, 음악, 문학+목공 디제잉 프로그램 호응 높음.
4	인천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50플러스 학교	학습 플랫폼 운영 전용카페 까미노(camino) 임대
5	전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아따매 (아저씨아줌마의따뜻한매순간) 앵콜	장흥, 구례 2개 권역 운영 귀촌예술가 중심 무용, 연극 등

표3 | 문학으로 한 달 살기 선정 단체 현황

연번	팀명	인원(명)	지역 내용	대표자 명
1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12	전북 익산	송용희
2	국도따라 발길따라	12	경기 의정부	최돈구
3	끄덕끄덕	10	경기 고양	배홍숙
4	코(co)끼리 이웃작가	10	서울	신윤상
5	한번 해 보자 문학 살이	9	전북 군산	안병훈
6	산책녀(산청에서 책읽는 여신들)	11	경남 산청	정남수
7	고래등	12	경기 고양	이윤정
8	리딩피아(루덴스키친)	10	경기 고양	송혜란
9	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푸른꿈꾸는언니들)	10	서울	김준용
10	물레방아골 문사철5060	10	경남 함양군	정해길
11	낭만! 그리고 문학을 함께하는 사나이들!	10	부산	배기윤
총 계				

표3 | 아르떼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학교 시범 운영

(진흥원 기획) 신중년 대상,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학교 시범 운영(안) - 향후 추진예정



다시 말해 신중년의 삶과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 강습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상투화’된 마음의 습관을 깨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 중 일부 광역센터에서 진행하는 미디어교육의 경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차 모니터링 때 내가 구한말 동학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형 선생의 ‘향아설위(向我設位, 나를 향하여 신위를 베푼다)’ 개념을 차용해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서 생각하는 미디어교육은 카메라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성취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 경남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삶을 디제잉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중년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강사의 스킬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아르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학으로 한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11개 동아리의 경우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인지 참여자들의 의지와 열정이 높다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유명강사가 진행하

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자들의 태도와 관점 그리고 감각의 변화를 운영 과정에서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섞이고 스며들 수 있는 세대 간 대화와 통합을 위한 ‘연령통합적인’ 공간 운용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령폐쇄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노년학자 김동배가 “노인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서 바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시작된다”고 한 언급은 노년 세대를 비롯해 신중년 대상의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서도 적극 고민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 그들끼리만의 교류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꼰대’ 문화란 그들끼리만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강화되는 확증편향(確證偏向)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이 있는 지역과 마을 속으로 자신을 더 개방하고 확장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서도 어떻게 다른 세대(특히 젊은 세대)와 만나고 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의 변화에 달려 있다. 자기 자신의 상투성에 저항하려는 마음의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 점은 결국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강사, 기획자, 프로젝트팀, 광역센터 모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할 수 있는 한 줌의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정책사업의 철학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그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한 섬세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 또한 두 말할 나위 없다.

4. 힐링의 공공성을 위하여

최근 청년 세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천재지변(天災地變) 상태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리치료가 성행하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유행하고, 긍정

의 심리학이 유행하는 현실을 보라. 이런 현실은 신자유주의가 유포하는 경제적 공포(V.포레스테) 바이러스가 우리 몸과 마음 상태를 일종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비상상황(emergency)으로 내몬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상상황이라는 말(merge)은 액체에 잠겨 가라앉는 것을 뜻하는 라틴어 mergere에서 나온 merge의 반대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아야 한다. 비상상황이란 익숙한 것에서 분리되어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일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전과 이후를 분기점으로 분명히 달라졌다.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문화인류학적으로 해석한 사회학자 김찬호는 『생애의 발견』에서 글로벌 격변 이후 “한국인들은 마음의 힘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감각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시대의 우울이다. 우리는 경제적 생존, 사회적 생존, 생물학적 생존 차원에서 보더라도 불안과 공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실존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긍정의 심리학과 힐링 그리고 멘토 열풍이 부는 것도 이러한 감정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자기 최면, 마인드 컨트롤, 생각 조절,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말들이 유행하며 긍정산업을 형성했는가 하면, 종교적 신앙 또한 자기계발 신앙과 힐링 신앙(조엘 오스틴)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판 주술이 되어버린 이러한 긍정주의에 대해 미국 작가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긍정의 배신』(Bright-Sided)에서 소비자 자본주의와 긍정주의가 공모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해고되어도 불평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다윈 사이징 선전의 고전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Who Moved My Cheese?) 같은 자기계발서를 무료로 배포해 긍정적 관점을 의식적으로 주입하는 식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위험은 너 스스로 감당하라”이다!

긍정 권하는 사회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사회 자체에서 비롯한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고, 나날의 삶과 노동에서도 ‘방어적 비관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신학자 김진호는 「좌담 : 힐링·멘토 열풍에 대하여」(『녹색평론』 129호, 2013년 3/4월호)에서 진정한 힐링이란 타자성을 체험하려는 힐링의 공공성(公共性)에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종교인과 친구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와 친구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 다른 나라 사람과 친구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 이런 식의 타자성 경험을 바로 힐링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86) 세포생물학 박사인 에런라이크가 유방암은 면역체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암 판정 이후 8년간 받아온 호르몬 대체요법을 중단

하며 의원성(醫原性) 문제를 사유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 ‘힐링의 공공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삶을 살수록 자신의 리듬을 잃고, 이웃과 의미 있는 서사(敍事)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정보 과부하와 과잉 커뮤니케이션에 시달리며 번아웃 신드롬(Burn out syndrome)을 온몸으로 ‘앓고’ 있다. 모든 인간이 노동력으로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 외에도 ‘전혀 다른 것’을 우리 스스로 욕망하려는 시선의 전환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립의 문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자립의 삶에서 형성되는 건강한 습관(habit)은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거주(habitat)할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 삶에서 편의설비가 적어야 사람살이에서 표현되는 창의력은 물론이요, 자립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길러진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이른바 힐링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신중년 세대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당연히 경제 문제를 비롯해 오만가지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사후 대책은 되었는데, 노후 대책이 안되었다”고 한 농담은 신중년 세대라면 누구나 지고 있는 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 말하지만 시간의 재구성이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밥 무어헤드)는 표현이야말로 실감되는 시절이다. 수명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인생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진 걸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입고, 발라야 젊어 보이는지 고민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나이듦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항노(抗老) 내지는 안티 에이징(anti-aging)으로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철학자 니체가 ‘왜(why)’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how)’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 말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항노 혹은 안티 에이징이 아니라 노화 혹은 나이듦을 창의적 나이듦으로 전환하려는 ‘향노(向老)’의 태도가 신중년 세대를 비롯해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초고령국가 일본의 경우 늙는 것을 즐기자는 향(向)노화운동이 활발하다. 늙어가는 것을 수용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향노학’이 논의되고 있고, 일본향노학학회 같은 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늙음과 노인을 문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받아들여야 할 삶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생애전환을 위한 세대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 ‘문래동 흥반장’ 최영식 선생과의 인터뷰 내내 “내가 왕년에” 하는 식의 소위 끈대질 언사를 단 한번도 듣지 않은 것은 다른 삶의 문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나에게 각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항상 행동하며, 다르게 살아가려는 최영식 선생의 모습에서 무엇이 ‘삶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법하다. 기업은행(IBK)에서 퇴직한 후 새롭게 여는 인생 2막의 시간은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 시간 속에 새로운 의미를 넣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2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하는 최영식의 주장은 50+이후의 삶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쉽게 말해 관계의 재구성, 삶의 재구성, 사회의 재구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이러한 재구성은 시간의 재구성에서 비롯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혼자 가기 두려운 길이라면 같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 된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내 ‘뭐라도학교’에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삼식이 브런치’ ‘어디라도 여행’ 같은 프로그램들이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참여자들로 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배움의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신중년 및 노년문화예술교육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래압력(Peer Pressure)의 강한 힘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신중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 또래압력 또는 또래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리라. 어느 시인은 우리가 내일 부르는 노래가 명랑한 노래가 되려면 오늘 내가 부르는 노래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레트의 말을 빌리자면 ‘노동’ 중심의 삶이 아니라 ‘활동적 삶’(vita activa)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최영식 선생과의 대담을 마치며 책에 인용한 도종환의 「귀가」라는 시가 지금·여기 대한민국 신중년의 현재와 미래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고 하였고

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

총총히 돌아서 갔다
그들은 모두 낮은 거리를 지치도록 헤매거나
별 안 드는 사무실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부는 바람 소리와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지는 노을과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밤이 깊어서야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돌아와
돌아오기가 무섭게 지쳐 쓰러지곤 하였다
모두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몸에서 조금씩 사람의 냄새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쓰지 못한 편지는
끝내 쓰지 못하고 말리라
오늘 하지 않고 생각 속으로 미루어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국 생각과 함께 잊혀지고
내일도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친 걸음으로 혼자 돌아올 것이다



02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문화 예술교육으로

정민룡 북구문화의집 관장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으로

정민룡 북구문화의집 관장

필자가 ‘생애전환’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얼마 전(?) 건강검진 대상 통보를 받으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40세와 66세를 생애전환기로 보고 이 때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생애전환기’는 가장 큰 신체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국민복지 차원의 정책용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생애주기 중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 맞춤형 건강서비스’다. 이러한 ‘생애전환’의 의미를 문화예술교육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전환’이 신체적 건강을 위해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이라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전환’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다. 특히 중장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술교육 지원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 골자는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추진이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50세에서 64세의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다.

‘생애주기 맞춤형’이라는 관점

흔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의 의미는 생애를 일정한 발달 단계로 나누고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볼 수 있는 특유한 변화 특징을 고려한 복지관점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년의 외로움, 고립과 절망을 치유하고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노년을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관점이 있다. 생애전환기를 통해 인생을 회고 하고 지혜와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삶을 창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노년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존재’ 중심의 시선이다. 노년시기와 같은 특정 연령기에 나타나는 문제의 대상으로 보고 해결과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은 생애를 일정한 단계로 나누고 이에 대응하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성인기 발달단계론’에 기인한다. 노년과 이전의 생애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노년기의 다른 특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 생애를 통해 성장과 변화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이처럼 생애주기의 의미를 통합적인 ‘삶’의 연속 과정으로 보지 않고 연령기를 분절시키는 것은 삶의 형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규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굴곡진 삶의 우여곡절을 몇 가지 사회규범, 연령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단순화시켜야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울 수 있다. 즉 공급자 중심의 정책적 관점이다. ‘생애주기 맞춤형’이 그것이다. 하지만 생애를 개인의 개별성에 핵심 포인트를 맞춘다면 ‘생애주기 맞춤형’이라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노년기의 특성과 노년에 직면한 문제는 온전히 사회적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인적 기질, 인생 경험의 차이에 의해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생애주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화두는 삶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보는 ‘생애전환’의 관점 보다는 나이대별 기능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 방식은 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미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보다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생애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 즉 생애학습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전 과정을 관통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이끌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수용하는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생애줄기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생애전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애전환, 예술! 아니? 삶을 보라!

‘생애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애전환’의 의미는 외로움과 고립의 위기를 달래기 위한 노년기의 여가, 유희로 보는 기존의 노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은 철학적 의미를 품고 있다.

생애전환의 의미는 생애를 단계를 나누고 분절시켜 특정 연령대에 적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원리가 된다. 생애전환은 삶을 성찰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문득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詩>가 떠올랐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과를 가져왔어요. 사과. 여러분은 사과를 몇 번이나 봤다고 생각해요? 천 번, 만 번, 백만 번?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과를 본 건 진짜로 본 게 아니에요.” - 김용택 시인의 영화 '시'의 대사 중.

주인공 할머니 미자(윤정희 분)는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해 김용택의 시 수업을 듣는다. 시 선생님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이 머냐고 묻자 주저하다’ 3~4살 때 언니의 목소리와 손짓을 기억하며 언니가 예쁘다고 해줬을 때다’고 눈물 흘리며 발표한다. 그녀의 행복했던 맨 처음 기억이자 마지막 기억이기도 하다. 그 이후의 그녀의 기억은 온통 아름답지 않는 것들 투성이다.

한편 알츠하이머 초기를 진단한 의사에게 항변하기 위해 병실에 놓인 동백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역설하지만 ‘저거 조화예요’라는 편견만 듣는다.

그녀는 시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시가 아니라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탈출구로써 시였다. 그렇다 보니 미자는 시가 써지지 않았다.

미자는 성폭력가해자인 반성 없는 손자를 경찰에 인도하는 등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용기 있게 해결하면서 비로소 시를 쓸(완성) 수 있게 된다.

결국 할머니 미자는 시를 쓰기 위해 단순히 꽃의 아름다움을 좇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봄으로써(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함으로써) 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내면의 아픔, 타인과의 소통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고 직시하고 애정으로 공감함으로써 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영화 ‘시’에서 생애전환기의 미자는 ‘시 쓰기’를 통해 한 번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저 겉모습만 예뻐하고 바라보는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거듭하면서 용서와 공감이라는 인간성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가슴속에 갇혀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꺼낼 수 있었다.

영화 ‘시’처럼 생애전환기의 우리들 각자 가슴속에 품고 있는 ‘시’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 현실의 어두운 그늘에서 아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창작을 한다’는 말이 있다. 오히려 살아온 인생에 대한 희비와 고통을 드러내고 극복하는 과정이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자가 껍데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시했기에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 사고의 전환, 경험의 전환, 생애전환은 자기 삶을 성찰하고 봄으로써 이루어진다.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_일상에 던지는 잔잔한 파동

위의 사례는 개개인의 인생의 아픔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로써 예술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조금

은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다. 이번에는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생애전환의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달할매 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달할매 학교’¹는 광주 월산동 ‘달피마을’ 할머니들의 인생이야기를 주제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동네의 문화사랑방과 비슷한 가깝다. 어느 마을회관이 그렇듯 매일 할머니들이 모여 누워 수다 떨기도 하고 때론 치매에 좋다며 다트연습을 하기도 한다. 동네 마을회관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삼 채 떠서 <달할매 학교>에 옮겨 놓는 것 같다.

참여하는 할머니들은 대부분이 과거 월산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이다. ‘신발집 할머니’, ‘흑염소 완도 이모’, ‘왕이모님’, ‘바른생활 할머니’로 호명되는 할머니들이 거의 매일같이 모여 예술로 여가를 보내신다.

프로그램은 별거 없다. 가끔 소풍 여행을 떠나고 비 오면 전 부쳐 먹고 때론 색칠공부나 하는 정도? ‘집 이야기’, ‘자기이야기’, ‘우리 동네 봄’, ‘지난 이야기’, ‘나이 들에 관한 이야기’ 등 매우 일상적이며 쉬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 표현활동이 그나마 문화예술교육활동으로 칠 수 있다. 할머니들의 정서와 취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세밀화, 사진모빌, 손수건, 자화상, 가방 만들기’ 등 단순히 만들기를 할 뿐이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프로그램을 통해 할머니들에게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인생 전환이 있었을까?

할머니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언제 이런 거 해보겠냐? 이번이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것은 ‘설렘’이었다.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바로 ‘설렘’이다.

어떤 할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하는 연극수업에 꼭 참여하기 위해 매주 1시간 반을 버스로 오시는데 그 분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니 그 할머니들은 주저 없이 ‘설렘’이라고 답한다.

립스틱 바르고 극장 나들이 한번 갔을 뿐인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을

¹ 달할매학교는 문화예술교육단체인 <문화점쟁>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주로 월산동 할머니들이 학생이다. 2016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생애사를 주제로 ‘할매세대의 생활사 기록, 내적치유 효과, 책 만들기를 통해 세대교류 및 세대 공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올해 2018년에는 광주문화재단의 <창의예술학교>사업에 참여하면서 ‘할머니 학교’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뿐인데 할머니들이 이날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것은 분명히 그녀들의 일상 리듬이 소소하게 변화하고 더불어 전환의 경험이 ‘설렘’이라는 감정상태로 표출된 것이다.

전환 경험은 스물 스물 찾아온다. 할머니들의 생활리듬이나 패턴이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과정에서 만나는 것들과 정서적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말이다. ‘경험의 전환과정’은 할머니들의 손맛과 삶의 노하우가 예술교육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되어 다른 세대와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동네의 공기로 퍼져나가 파동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달할매학교>에 참여하는 할머니들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소품을 항상 혼자 사는 집에 진열해 놓고 자식들이나 손주에게 자랑하곤 한다. 온전히 자기 정성으로 만든 숙제결과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문화예술교육이 할매들의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만들어 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수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된다. 혼자만 누리기에 너무 아까워 이웃에게 동네로 소문낸다. 이는 곧 동네의 문화로 전해진다.

그 변화는 새로운 동네 커뮤니티의 출현과 변화와 직결된다.

새로운 할머니 커뮤니티²가 등장한다.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과 반경은 늘어난다. 그리고 어떤 계기와 인연으로 다른 세대(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중년여성)가 참여하게 된다. 할머니들과 중년여성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달할매학교>에서 마을여성예술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어쩌면 처음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생애전환의 관점, 즉 삶에 주목하는 관점을 통해 진짜 전환되는 삶의 경험이 이 동네에서 만큼은 가능하다. <달할매>들은 그렇게 생애전환기를 즐겁게 보내고 계신다.

2 새로운 할머니 커뮤니티의 등장

달할매학교는 노년을 서로 의지하며 어깨동무 친구 할머니 커뮤니티다.

노년의 빈틈을 서로 메워주는 돌담 커뮤니티다.

비와도 오시는 강력한 끈끈이 커뮤니티,

노년의 삶의 존재를 서로 채워주는 존재 커뮤니티

할머니들의 도시재생 커뮤니티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예술교육’

이미 광주에서는 2014년부터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자씨와 재봉틀>³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원래 기획자의 어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경자씨는 실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기획자 어머니의 이름이다.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이 단순히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 노년의 개인주의를 칭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 3 환경기로서 개인들의 삶을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애전환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나이 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이슈를 만들어 냈다.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을 표방하며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편화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개별적 존재로서 개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함을 비판하고자 했다.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다르지 않다. 서로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다만 ‘모두’라는 것이 보편성의 개념만으로 이해되고 ‘한사람’의 의미가 고립된 개인성으로 오역되지만 않았더라면...

문화예술교육이 ‘한사람’이라는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해야 삶에 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모두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기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곧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이다. 결국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을 위함’을 표방했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공감하는 중장년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었다.

할머니들은 도시에서 폐지 줍고 빈 땅만 생기면 텃밭을 가꾸고 환경을 보살피는 도시재생의 미생물과 같은 존재다. 나이 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라 경험으로 다시 재생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2017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중, 정민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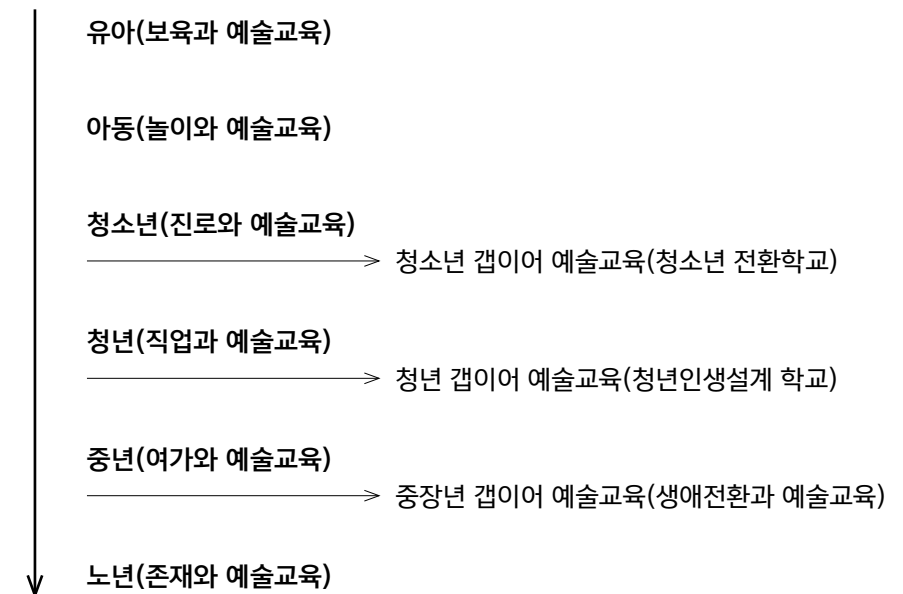
3 우리네 어머니들에 대한 오마주 <경자씨와 재봉틀>


시작은 2014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딸(임아영, 프로그램 기획자)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는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갓 돌 지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출근을 시작했으나, 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다. 엄마는 20년 넘게 학원을 하다가 몇 년 전해야 은퇴를 선언하고 귀향하신 터였다. 엄마의 휴식도 잠시였다. 육아 노동에 엄마의 한숨과 눈물이 는다. 딸로서 엄마의 인생에 대해 처음으로 다른 시각의 질문이 자꾸 생긴다. 문화예술교육 하는 사람으로서, 내 어머니, 동시대 어머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경자씨와 재봉틀>을 통해 바라본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아르떼365, 천윤희

나가며

필자는 앞의 글에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또 다른 가치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결코 ‘중장년 문화예술교육’의 별칭이 아니다. 특정 연령대, 즉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단편적인 시선이 아니라 ‘생애학습’으로서 연속성 있게 삶의 문제를 내용으로 하고 삶의 과정을 관통하는 질적 내용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생애전환 관점의 문화예술교육은 삶에 관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삶의 경험(창조적인 삶, 지속가능한 삶)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생애전환’의 의미는 인생을 생애주기로 단계로 나누어 어떤 특정한 나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삶을 관통하는 연속적인 것이다.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경험의 전환, 전환 경험, 전환 학습’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르게 사는 방식을 깨닫고 실천하는 ‘전환적 삶’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연한 계기로 인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스물 스물 나타나며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다.)

그래도 굳이 정책에서 말하는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틀에 맞추어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을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01 생애전환, 나이와 시간에 대한 사유

신동호 (사)인문사회연구소장, 코뮤니타스 대표

생애전환, 나이와 시간에 대한 사유

신동호 (사)인문사회연구소장, 코뮤니타스 대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거울은 사진을 찍는 사람만 비추잖아요. 하지만 유리창으로 찍는 사진에는 촬영 중인 나도 살짝 비치고 창 너머의 세상도 들어가 있어요. 같은 창문이라도 유리가 없으면 건너편만 보이지만 유리창에는 찍는 사람까지 비치게 되어 있어요”

- 아라키 노부요시, <천재 아라키의 애정사진> 중에서

나이에 대한 사유

‘늙음과 낡음을 동일시하며 나이 든 사람을 점점 더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늙음이라는 실존의 강렬한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문화, 정치적 감각을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 노년이 아닌 사람이 노년에게서 발견해 감탄할 것은 ‘젊음의 유지가 아니라 존재감과 품위’다(‘여전히 젊으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의 역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요즘 노년에게서 가장 손쉽게 박탈되는 것이 바로 이 존재감과 품위, 존엄이다. 또한 개인의 독립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근대화의

가치 체계는 신체적 쇠락과 그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로 표시되는 노년을 손쉽게 주변으로 내몬다(고립과 배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녀는 그야말로 문자적 의미에서 최전방에 있는 아방가르드다. 그/녀의 내부에 고여 있는 미지의 시간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 이 시간의 주름이 품은 ‘서사적 알’을 부화시키는 것. 시간의 되새김질 속에 새로운 해석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야기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철학이고 예술이며 정치학이다. 노년의 몸이 품은 시간의 주름에서 흘러나오는 웅성거림을 듣기 위해서는 ‘노년’이라는 추상적이고 집단적인 표상에서 떠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노년에게로 다가가야 한다. 웅얼거림의 높낮이, 색, 장단에 따라 이 노년과 저 노년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을 추상적인 통념에 가두려는 자본주의의 기술실용주의에 맞서 자기 ‘멋’대로 노년기를 사는 다양하고 상이한 노년의 이미지, 다양한 색과 향의 존엄, ‘하나이지 않은 존엄’에 주목해야 한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개별 주체로서 겪는 경험을 통제하고, ‘좋은 삶,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들 자신의 주체적인 해석이나 상상력을 박탈하고..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 등 공동체 안에서의 존엄한 위치나 그에 따른 통합적 정체성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생산적 존재로서의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지나치게 편협하게, 지나치게 뷰티산업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아름다움’의 좁은 길을 벗어나야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맞서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알아차리는 아름다움의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 젊어야 아름답다는 뷰티산업의 계략이나 소비 능력이 있어야 존엄하다는 자본주의 논리,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해야 의미 있다는 유사 공공성의 논리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리듬에 맞게, 현재의 이 노년이라는 생의 무대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이 든 삶을 사는 다양한 노년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 김영옥, <노년은 아름다워 - 새로운 미의 탄생> 인용, 편집

시간에 대한 사유 (활동적 삶 vs 사색적 삶)

활동적 삶은 시간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주체적 개입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킨다.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시간에서

자유로움으로써 완전한 주체가 되기 위한 싸움이였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전통적인 시간의 리듬, 그리고 그 리듬 위에 형성된 삶에 대한 감각’은 파괴된다. 모든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인간의 막대한 능력이 시간을 더할 나위 없이 가볍게 만든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줄어드는 데 비례하여 시간의 값은 싸지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간의 보복이 시작된다. ‘무게를 잃어버린 시간’은 댐이 무너진 거센 물살처럼 마구 흘러가버린다. 인생도 그 물살에 휩쓸려 가볍게 떠내려간다.

리듬이 없는 시간은 고유한 시간의 질을 상실한 채 양화된 시간(향기가 없는 시간)이다. 한병철이 ‘활동적 삶’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사색적 삶’이다. ‘사색적 삶’이란 행위를 통해 세계와 시간을 조작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적 삶의 대척점에 있는 삶이다. 그것은 정관(靜觀)하는 삶, 무위의 삶으로서, 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뜻대로 대상을 조작하고 바꾸어버리는 협소한 욕망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드러나는 세계의 모습을 가만히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어쩌면 ‘기다림에 대한 감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이를테면 열매를 숙성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자연의 시간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단축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아름다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 이것이 한병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사색적 삶은 이른 바 느리게 살기와는 다르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한 시간문제의 원인을 근대 이래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어온 삶의 가속화 과정으로 환원하는 입장에 비판적이다... 가속화라는 현상은 세계를 인간 의지에 따라 조작하고 지배하는 활동적 삶을 인간 존재의 유일무이한 가치로 보는 세계관의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한병철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지칠 줄 모르고 세계를 변혁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의 뜻’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다.’

소설을 통한 프루스트의 시간 실천은 조급성의 시대라고 불린 당대, 예술조차 ‘짧은 줄에 바짝 묶여있던’ 시대에 대한 반응이었다. 예술은 서사적 호흡을 잃어버렸고, 세계는 전반적으로 가쁜 호흡 속에 빠져들었다. 프루스트에게 조급성의 시대는 곧 모든 “사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철도의 시대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프루스트의 시도는 인간 삶의 탈시간화 과정이 진전되면서 결국 삶을 분해해버릴 지경에 온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물의 존재를 탈바꿈시키지는 못한다. 진짜 문제는 지속되는 것, 긴 것, 느린 것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즉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어간

다는 데 있다. 사색적 삶의 형식은 ‘머뭇거림’, ‘느긋함’, ‘수줍음’, ‘기다림’, ‘자제’처럼 후기 하이데거가 ‘오직 일만 하는 어리석음’에 맞세운 존재 양식과 동일한 것이다.

- 한병철, <시간의 향기>, 역자(김태환) 해설 및 본문 인용, 편집

베이비부머, 신노년

- 고도성장기에 컸고, 기계처럼 일을 했으며, 결핍 속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낸, 노동시장 이외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는 세대
- 갈등요소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세대, 아래 세대에 말 걸기를 시도하지만 콘텐츠는 부족하며, ‘커팅/소외되는 공포’를 지닌 세대
- 세상을 바꿔본 실질적 경험과 주도성은 있지만 ‘감수성’은 황폐한, 민주화 운동을 청년기에 경험한, 일상의 협동/소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 분노/용기로 대응한 세대
- 이들을 지칭할 문화적 코드가 애매한, 문화적 욕구가 개발되지 못한, 연결욕망이 부족한 세대
- 일에 집중하다보니 자기 해석과 자기 스토리가 없고 자기 해석을 미디어가 대신한, ‘채팅’은 있으나 ‘텔링’은 없고 ‘스피킹’과 ‘스피치’만 있고 ‘스토리’ 그리고 자기 언어가 없는 세대

* 문화활동을 매개로 개별의 자기 서사와 내러티브를 이끌어내어 공론의 장에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과 상호학습,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고 공동체의 선배로서 지혜를 전달하는 선배시민


*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개별의 스토리의 생성과 그것을 광장이나 카페와 같은 공론의 장에서 객관화함으로써 자기 해석과 자기 주체성을 발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적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 ‘문예적 공공성’

멈추기, 머무르기, 딛 데 보기, 딛 짓 하기, 낮설어지기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 경남)

‘내 삶을 디제잉하다’는 파랑나비, 마다가스카르, 오드리힐뽀, 파랑새, 에스메랄다 등이 아구 할매라고 불리는 김혜란(방송인)과 함께 엮는 삶의 이야기와 노래를 직조해서 지역언어로 들려주는 뮤직박스이다. ‘청춘을 지나가는 사람들, 좀 더 살아본 청춘’이라는 자기 최면과 자기계발의 다짐, 운명과 숙명에 대해 말하며 어찌지 못하고 떠밀려온 산팔자 물팔자 생애에 대한 고백적 성찰, 귀농 3년차 좌충우돌 농사와 식물 이야기, 외할머니 68명 후손의 청학동 여행, 영혼을 흔들었던 그리스인 조르바를 찾아 떠난 해외 여행이 노래와 함께 등장한다.

(동영상 - 마다가스카르)



02 생애전환 사업 전남사례

임진호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생애전환 사업 전남사례

임진호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고영직 선생의 발제문을 ‘삶의 전환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인 개개인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라’로 정리할 수 있겠음.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언급한 ‘speak yourself’와 같은 방향을 향하지만 교육의 목적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즐거움과 재미, 여럿이 함께, 자신을 표현하면서 정체성을 갖추어 가는 방식으로 삶의 전환 기회와 방법을 제공토록 기능해야 함을 강조. 교육관련 공모사업의 방향이 기능전수에서 개인의 감정표현, 재능 발굴, 그리고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화됨.

그런데 생애 전환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기가 있음. 기존 삶의 방식이 단절되고 새로운 변화를 자의 반 타의 반 강요받음, 경제적 활동, 삶의 공간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많은 계기를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갖게 됨, 가장 큰 비중은 경제적 활동(퇴직)이 될 것임. 이는 전남의 삶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전남의 경제활동은 농촌, 어촌, 산촌, 축산 등 전환의 필요성이나, 전환시기 자체를 접하기 힘든 업종이 많음. 그리고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되어 교육사업이 추진되는 봄과 가을은 바쁘고 상대적으로 사업이 없는 더위와 추울 때 여유가 생겨 사업 참여기회가 없음. 출근과 퇴근을 통해 근로와 휴식이 구분되지 않는 생활 방식임.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선 경험이 부족하여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도 있음(어떤 섬은 70세가 넘어서 실제 공연하는 것을 처음 보신분도 있음). 강사들 또한 접근성이 어려운 섬이나 도서 지

역을 대상으로는 사업신청을 안함. 전남의 경우는 타지역과 같이 퇴직을 앞둔 50 ~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 교육이 아닌 문화소외 대상에게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절실함. 사업대상자 발굴, 사업지역 선정, 프로그램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개발이 필요

이번 진흥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전남의 생애전환 사업은 2개 지역에서 진행. 두 개 지역 모두 전문예술단체의 활동이 없는 지역이며 지역민 대상 예술교육사업도 전무한 상황임. 사업을 운영하는 예술가는 모두 타지역에서 전남으로 삶의 공간을 전환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을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하는 강사나 참여자 모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삶의 전환기를 접하고 있음.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사업을 구성하고 만드는 사례에 대해 설명

사업 개요

- **사업명** 2018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in 전남
“아저씨아줌마의따뜻한때순간! 앵콜!”
- **사업지역** 구례군, 장흥군
- **사업대상** 도내 생애전환기 세대(50~60대)
※ 서울특별시조례(제6027호, 2015.10.8.제정)에 따른 생애전환기를 맞은 세대(50+세대, 장년층)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전남은 50~60대로
- **사업내용**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추진
생애전환기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미니포럼 개최
생애전환기 세대 대상 지역내 이주 예술인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44백만원(국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

- 생애전환 세대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
- 참여자의 감성 치유를 통한 대상자 자신과 타인의 관계 개선 모색
-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전환’세대 정의 모색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개요

구분	구례	장흥
프로그램명	“마음아 안녕? 나는 ...”	“몸아 안녕? 나는 ...”
교육대상	관내 50+ 세대(원주민 및 귀농·귀촌인)	관내 50+ 세대(원주민 및 귀농·귀촌인)
모집정원	10~12명	10~15명
회수(장르)	15회(연극)	15회차(무용 등)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마음아 안녕? 나는 ...” 구례

◦ 기획·추진단 구성

- 연출, 운영 이상직 (구례군민극단 예술감독 / 前국립극단 단원)
- 기획, 운영 김유신 (구례군민극단 기획 / 2016년 귀농)
- 기획, 운영 양정수 (구례군민극단 단원 / 극작가, 2008년 귀농, 학교 연극 수업)

◦ 회차별 프로그램 내용

회차	주제	주요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2~5회차	추억, 어린시절, 가족 이야기	발성 및 몸 풀기 ※ 프로그램 매 회차별 극작가가 참여자 이야기 기록 및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극본 제작
6회차	공연 관극	
7~9회차	첫사랑, 비밀, 마음아픈 이야기	
10~13회차	나만의 것이기도 한, 너와의 것이기도 한 “나의, 우리의 이야기”	이야기를 이용한 장면 만들기
14회차	공연 관극	
15회차	공연 관극 및 마무리 ※ 참여자의 솔직한 이야기가 관객과 나눌 수 있는 공연까지 연결	

나. “몸아 안녕? 나는 ...” 장흥

◦ 기획·추진단 구성

- 기획, 운영(춤) 신미경(예술단 결 단장 / 前서울예술단 창단멤버)
- 운영(소리/가야금) 김효정/서혜린, 박승우

회차	주제	주요내용
1회차	“내 이름 짓기” “생기댄스!”	1.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내 스스로 내 이름 짓기 2. ‘댄스’라기 보다 몸짓으로 움직임을 느끼기 비 맞는 나무, 엄마의 뱃속의 나는 어땠을까
2회차	“나는 이랬고 이렇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룹 테라피 : 6가지 움직임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나의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은 후 이야기 시작 - 좋았던 때, 슬펐던 때, 화가 났을 때 등 어떤 이야기든 돌아가며 이야기
3회차		
4회차	“시와 함께 쉬어가는 날” (8월15일 공연 후)	장흥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에서 시와 함께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낭송도 상상도 하는 하루
5회차	“특별한 날”	연습실을 공연장 삼아 선생님들의 공연을 감상 - 2인 1식 다과를 즐기며 우아하게 공연 관람(공연 관람 에티켓)

회차	주제	주요내용
6회차	“찾아가는 춤바람”	민요나 좋아하는 가요에 맞춰 움직이기 - 한국춤
7회차	“소망 들어주기”	생활고로 바빠 오지 못하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 교육시간 설정/당일 프로그램
8회차	“트라우마 극복하기”	커다란 여행가방 : 한사람씩 그 가방을 끌고 움직임과 생각나는 이야기 공유(생활소품 활용) - 나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함으로써 점점 작게 만들어 냄
9회차	“나만의 춤”	1. 오랫동안 남편에게, 자식에게 맞춰주기만 하면서 생을 살아왔다.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다. 짧지만 강렬한 움직임 창작 2. 장흥다운, 장흥사람의 춤 만들기
10회차	“생애전환의 날”	가족, 친지, 친구들이 모여 이제까지의 과정을 공유

사업 운영자 현황

	구례(이상직)	장흥(신미경)
출생년도	1966	1965
출생지역	충북 청주	강원도 영월
주요경력	국립극단 단원, 운영위원	서울예술 창립단원, 디딤무용단 지도위원
활동지역	서울(국립극단 94년 ~ 2010년)	서울, 성남
전입시기	2010년	16년 12월 말 전입
전입동기	30살 중반에 귀농결심, 2010년 4월 국립극단이 민영화 이유로 해체되고 단원 전부 해고, 해고되기전전남답사, 지인이 동편제 소리축제 예술감독 소개(7월 전입)	초등학교 1년부터 춤배움, 5학년때 서울로 이사, 연구경향이 많음 새로운 장르개발 검무를 접함, 검무축제, 예술에 대한 회의 발생 (다접고 가자) 15년에 남편이 구례에서 장흥 (신랑고향)

	구례(이상직)	장흥(신미경)
지역에 대한 느낌	농사 목적 땅값저렴 한곳을 물색중, 귀촌 귀농인들의 문화갈증에 대한 요청으로 연극제작 문의로 연극제작 (1백만원) 11년 6월경, 연극을 만드는 감동, 열정이 훨씬 더 큼, 연극의 본질을 발견, 공연 이외 일반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됨	장흥은 예술가가 없다고 생각함 (서울과 같은 전문가가 없음) 지역의 예술가가 극소수(단원 3 명으로 시작 현재 30명 교육 중)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무대에서 펼치고 싶고 만들어 가고 있음, 그런 기회를 구례에서 만남, 예산의 지원, 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게됨, 지역민도 원하고 있음, 펼칠수 있는 기회제공
공연자 및 강사로 살아가기	지역생활에 만족함, 농사병행으로 전담을 못하지만 만족 마음이 행복하다, 지역민이 티켓을 사서 공연관람, 공연을 순수하고 즐겁게 봐줌.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줌. 지역에 없는 새로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울에 있을 때 꿈꿨던 것임. 극단작품이 자본에 의해 결정됨, 진정성 있는 연극이 아닌 상품, 흥행작을 중심으로 결정	지역에서 전통예술(무용, 소리, 가야금)에 관심있는 사람(아마추어 포함) 같이 일구어 가고 있음 한국무용 강습에 참여한 사람을 위주로 구성.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중임. 지역에서 없었던 일이며 방식이라 논란이 되기도 함
생애전환 참여자	10여명 (50 ~ 60대, 40대) 7~ 8명 정도 귀농임. 원주민은 참여를 어려워함. 자기 경험이 있었을 때 나이가 들어 찾는 경우가 많음 참여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구성 이야기 하게 만듦.	10명 내외, 이주민 1/3, 지역민 2/3 기술전수, 장르 반복연습을 탈피 수업시간에 마음이 따뜻한 시간으로 만들고자 운영자들과 협의, 프로그램 구성 판소로, 가야금, 춤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감정을 표현하며 움직임으로 연결. 서로의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며 예술적 장르로 연결시키는 노력. 매 수업시간, 3시간 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생애전환 사업에 대한 의견

연극배우, 춤꾼으로 살면서 회의도 하게 되고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았음.

구례와 장흥은 개인의 삶을 주제로하여 참여자가 함께 구성. 진정성 있게 교육생, 그리고 지역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 참여와 관심으로 예술가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음. 예술가로서 지역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작업을 진행해보면서 느낀점은 예술을 빼앗겼다고 생각함. 엘리트 교육, 기술교육 등 기존에 진행된 예술교육과 창작활동 방식들을 바꿔보고 싶고 예술의 기능을 지역민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함. 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존감이 생기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됨. 일반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나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 지역민은 예술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으며 농촌의 특성상 참여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치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함께하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음. 지역민이 소통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예술 본연의 목적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됨.

전남형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경험이 부족한 지역민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귀농·귀촌인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민 교류기회 제공,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공감,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사례 공유 등이 필요함



03 예술은 달걀후라이다

김옥진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마음놀이터 대표

예술은 달걀후라이다

김옥진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마음놀이터 대표

꽃나이

안개꽃이 좋더라
내 나이 열여덟엔
한아름 가벼움에
꽃인 듯 구름인듯
그 푸른 우리 같더라

장미꽃이 좋더라
내 나이 스물다섯엔
붉은 가시 오뚝한 화려함
백송이 이백송이 다가질 것 같은
그 꽃이 나 같더라

벚꽃이 좋더라
내 나이 서른즈음엔
꽃바람 불어 하늘 가득 날릴때면
나도 따라 훨훨 날아갈 것 같더라

동백꽃이 좋더라

내 나이 마흔이 되니
촌스럽고 투박한 앞사귀
붉디 붉은 꽃
왜 좋은지 몰라도
그냥 보면 좋더라

오십이 되면
육십이되면
또 어떤 꽃이 좋을까?
내려가며 보일 꽃이 또 궁금해지네

- 김옥진 -

꽃에도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진다.
일상... 그 변화없이 물처럼 흘러가는 일상속에서 우연히 준비 없이 우리는 중년을 맞는다. 중년이란 여성에겐 더 특별하다. 신체적 변화와 함께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경험을 더 자주 더 많이하게 된다. 갱년기. 울컥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우리는 ‘갱년긴가봐’라고 한다.

그렇게 갱년기는 부정적 의미로 중년의 우리들을 위축시킨다. 아직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갱년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들을 듣고 불안해 한다. 사춘기는 성장의 시기라고 이해하면서 왜 갱년기는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뱉듯 해야만 하는 것일까? 준비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맞는 삶의 순간을 더 지체롭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덜 아프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찾는다. 동지들을 찾고 만나면서 지내온 4년의 과정들을 통해 조금은 찾아가는 것 같다.

생애전환. 그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가 집중한 것은 그 이전의 삶이다.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성장에 대한 믿음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지지와 응원이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함께 고민하고 창조하는 과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중년의 엄마들이 변화한다.

어릴적 동생들과 까불고 놀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변화 시키고 엄마를 이해하면서 엄마로 살아온 내 삶도 인정하게 된다. 60대 후반인 엄마가, 엄마가 보고 싶다 말한다. 언제나 늘 보고 싶다 말한다. 내 어릴적이 보고 싶고 내 삶의 행복한 기억들이 보고 싶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는다. 그러나 더 많은 어린 시절을 기억해낸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시와 춤과 연극과 그림으로 내 삶을 기억하고 응원하고 함께 가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의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하거나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생각하며 우울감에 빠지지냈던 어머님은 문화예술교육을 만나고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겁다고 한다. 생애전환기에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여러곳에서 더 다양하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더 자주 더 소중한것들을 잃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켜야한다.

끝으로 나는 문화예술교육을 달걀후라이에 비취 그린 그림을 소개한다.
문화예술은 그렇게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만나고 즐길수 있어야 한다.



MEMO

